

효과적인 문법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김부자

(서울기독대학교)

Kim, Bu-Ja (2003). A study on effective ways of teaching English grammar.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9(2), 109-132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plore effective ways of teaching English grammar, which is geared toward improving students' communicative competence. Grammatical competence is essential to communicative competence. Grammatical knowledge cannot be acquired unconsciously in an EFL environment such as in Korea. Therefore learners should be given grammar instruction. More importantly, they should be instructed in grammar so that they can develop their grammatical abilities which are the foundation of communicative competence. The following is proposed for the grammar instruction placing the focus on improving communicative competence. First, it is effective to explain the form, meaning and pragmatics of a grammatical rule to learners in Korean. Second, learners should be given instruction in grammatical patterns that deals with constructions and meanings together, which can enable them to produce sentences by themselves. Third, it should be taught to understand constructions and meanings on the basis of word orders. Then the following steps of grammar instruction are suggested. In the first step of grammatical instruction, students should be provided with the illustrations of grammatical structures which link communicative functions and grammar. In the second step, learners should be gotten to practice grammatical constructions repeatedly enough to use them unconsciously. Lastly, communicative activities such as description and role plays should be included in grammar instruction to integrate grammar practice and communicative language use.

[grammatical competence/communicative competence/grammar instruction, 문법적 능력/의사소통능력/문법교육]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는 세계화로 특징지어진다. 전세계인과 대등하게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세계화 과정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세계어로 자리 매김 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현재 우리 나라 영어 교육계를 압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세계화라는 국가적인 커다란 과제를 수행하려고 할 때 10년 이상 영어 교육을 받은 사람이 과연 의사소통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의사소통 위주의 영어교육이 특별히 강조되면서 그 결과 언어 구조를 익히는 문법지도는 경시되는 경향이 있고, 극단적인 경우 지금까지 영어교육을 문법 위주로 해온 탓에 영어 한 마디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을 하며 문법을 죄인 취급하기도 한다.

의사소통능력이란 무엇인가?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이란 어휘는 Hymes(1972)가 그의 Sociolinguistics에서 사용한 용어로서, 말과 글로써 자신의 견해를 제대로 표현하고 상대방의 말 또는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들 중에는 영어문법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갖고 있으면서도 외국인을 만나게 되면 상대방의 대화를 알아듣지 못해서 당황하거나 영어다운 영어 한 마디도 쓰지 못하며, 영어편지 한 장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그렇다면 분명 문법 지식과 의사소통능력 사이에 심각한 괴리 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의 유창성만을 강조하여 언어의 정확성이 경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연 문법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식이 아닌지 재고해봄으로써 외국어인 영어 습득에서의 문법교육의 역할과 문법지도에 대한 방향을 조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과 학습자 요구분석을 근거로 문법교육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데에 있다. 둘째,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위한 효과적인 문법지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문법적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생들의 문법적 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그리고 의식적 문법교육이 외국어 학습에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하며, 대학생들이 대학 영어교육에서 문법지도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다. 다음으로 문법이론들을 고찰하여 영어교육에 유용성이 있는 이론을 뽑아내어 실제의 문법교육에 적용시켜 구체적으로 문법지도를 어떻게 해야 문법 그 자체를 위한 문법교육이 아니라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법교육이 될 수 있는지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역시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바람직한 문법지도 단계를 살펴본다.

II. 문법적능력과 의사소통능력

1. 문법의 정의

문법에 대한 정의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시대의 언어 이론에 발맞추어 변해왔다. 학문적 전통문법 학자로서 잘 알려진 Jespersen(1972)은 문법이란 언어의 구조를 다루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각 언어의 문법은 그 언어 자체의 체계를 이루게 한다고 한다.

구조주의 문법에서는 구조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음(sounds)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뜻에 차이를 초래하는 음의 최소단위인 음소(phonemes)를 설정하고, 다음 음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다음 단계인 형태소(morphemes)의 단계로 올라가게 된다. 그 다음, 형태소를 중심으로 하는 낱말(words)의 단계를 거쳐 낱말의 일정한 배열로 이루어지는 가장 높은 단계인 문장(sentence)의 단계로 올라가 문장의 구조(structure)를 밝히게 되면 모든 문법적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20세기 후반 언어학계를 주도하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해온 변형생성문법 이론에서는 넓은 의미로 문법을 문장생성을 위한 규칙들의 체계로 규정한다. 변형생성문법의 대표적 학자인 Chomsky(1965)는 문법이란 언어적 능력들(linguistic abilities)의 체계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그리고 Chomsky는 언어적 능력들을 언어능력(competence)이라고 칭하며, 언어수행(performance)과 구분한다. 결국 한 언어의 문법이란 그 언어의 모국어 화자가 그 언어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인 언어능력의 모델이라고 언급한다. 또한 Chomsky(1973)는 두 가지 언어능력을 구분하는데 실용적인 능력(pragmatic competence)과 문법적인 능력(grammatical competence)이다. 실용적인 능력은 언어외적인 능력으로서 비언어적 정보를 이용해서 문장을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다. 문법적 능력은 세 가지 유형의 능력을 포함한다고 한다. 첫째는, 구문적 능력(syntactic abilities)으로서 한 언어의 독특한 문장 구조 또는 단어 배열에 대한 지식이다. 둘째는, 의미적 능력(semantic abilities)으로서 한 문장 또는 낱말이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지식이다. 셋째는, 음운적 능력(phonological abilities)으로서 한 언어의 음에 대한 지식이다.

2. 의사소통능력

Hymes(1972)는 Chomsky(1965)의 언어능력과 구별하여 의사소통능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이란 실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Canale과 Swain(1980)은 의사소통능력이 다음 네 가지 능력으로 구성됨을 주장했다.

- *문법적 능력
- *사회언어학적 능력
- *담화적 능력
- *전략적 능력

즉 의사소통능력이 네 가지 능력들의 복합된 개념으로 정의되었다. 주목할 것은 의사소통능력을 언어능력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기 보다는 언어능력을 문법적 능력으로 보고 의사소통능력을 구성하는 한 가지 요소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문법적 능력은 Chomsky(1965)의 언어능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언어규칙에 대한 지식이며, 사회언어학적 능력은 대화가 일어나는 사회 문맥 안에서 적절한 발화를 하는 능력이다. 담화적 능력은 개별 표현을 전체 담화 및 문맥의 의미와 관련지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전략적 능력은 의사소통을 보완하거나 의사소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화자가 사용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전략을 뜻한다.

문법적 능력은 분명히 의사소통능력의 한 요소이다. 따라서 문법적 능력만으로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는 없겠지만,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문법적 능력이 필수적이다.

3. 문법적 능력에 대한 학습자의 신념

최근 영어교육의 방향 중의 하나는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교육 내용이 수요자인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한다. 또한 학습자의 언어학습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학습자의 신념이 언어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법교육에 대한 연구로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문법과 관련된 그들의 신념과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다섯 개 사년제 대학의 519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먼저 학습자들도 문법적 능력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알기 위해 제시한 질문에서 표1에서 보듯이 약82%에 해당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문법적 능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표 1
문법적 능력의 필요성

영어를 배우는 데 문법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빈도(명)	퍼센트
예	426	82.1
아니오	93	17.9
합계	519	100

III. 의식적 문법교육의 필요성

1. 이론적 고찰

문법을 의식적으로 가르치는 문법교육이 언어학습에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상반된 견해가 있다. 문법지도가 외국어 학습에서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견해도 없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문법지도는 외국어 학습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

전통적인 문법번역 교수법(Grammar-Translation Method)에서는 문법을 최고로 강조하여 문법규칙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과 학습자의 문법규칙의 암기를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입장이다. 문법번역 교수법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겨난 자연교수법(Natural Approach)과 직접교수법(Direct Method)에서는 문법교육은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문법규칙의 설명이나 이해에는 관심이 없다. Krashen(1993)은 학습자가 이해 가능한 충분한 입력을 접함으로써 문법은 무의식적으로 습득된다고 생각한다.

반면 문법교육만으로는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 없지만 목표어에 대한 접촉만으로도 언어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없으므로 적절한 문법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이 많다. Rivers(1981)는 문법이 외국어 학생들에게 중요한 도구일 뿐 아니라 문법을 연구, 분석하고 이해할 때 가장 잘 목표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Wilkins(1976) 역시 문법은 언어적 창조력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도구이며, 문법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은 의사소통능력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또 Rutherford(1987)는 문법교육이 언어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피력하며, Ellis와 Rathbone(1987)의 연구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에서 문법교육은 언어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암시를 해주고 있다. White(1987)도 문법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Long(1988), Ellis(1990)에 의하면 문법교육이 보다 빠른 외국어 습득을 도와주며 보다 높은 단계를 성취하게 한다고 한다.

우리 나라와 같은 EFL 상황에서는 직관 또는 이해 가능한 입력을 통해 문법을 습득하기 어렵다. 그런데 문법적 능력은 의사소통능력의 주요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적절한 문법교육이 필요하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우리 나라 상황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문법교육은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영어교육에서도 문법교육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문법교육에 대한 학습자들의 요구

대학생 학습자들은 대학 영어교육에서 문법지도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 표2에서와 같은 질문을 했다. 결과는 표2에서 보듯이, 75.5%의 다수 학생들이 대학 영어교육에서 문법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표 2
대학 영어교육에서 문법지도에 대한 필요성

대학 영어교육에서도 문법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빈도(명)	퍼센트
예	392	75.5
아니오	127	24.5
합계	519	100

이론적 고찰에서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한 학습자 요구분석에서도 문법교육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중요한 것은 문법지도를 함에 있어 과거처럼 문법에 관한 교육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문법을 활용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문법이론을 고찰하고, 문법이론에서 효과적인 문법교육에 도움이 될 내용을 뽑아 실제의 문법교육에 적용시킴으로써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문법지도를 지금부터 논하도록 하겠다.

IV. 문법이론 고찰

전통적으로 경험주의(empiricism)와 이성주의(rationalism)간에 언어 습득 및 학습에 관한 중요 논쟁이 있어 왔다. 심리학의 행동주의(behaviorism)는 경험주의 철학에 입각하고 있으며, 행동주의 심리학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언어학의 구조주의(structuralism) 문법이다.

행동주의자들의 언어 학습 이론에 의하면, 언어는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자극-반응에 의한 습관에 의해 형성되고, 그 습관은 반복에 의해 언어지식으로 정착된다고 본다. 그리고 언어 학습이란 두뇌의 사고 과정이 아니고, 기계적인 반복에 의해 이루어지는 귀납적(inductive) 과정으로 간주한다.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행동주의 언어 학습 이론에 근거하여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언어 교육의 개혁을 가져왔었다. 구조주의에서는 언어를 일련의 습관으로 간주한다. 정상적인 언어사용은 모방(mimicry) 아니면 유추(analogy)라고 단언하며, 문법 규칙은 다만 습관을 기술한 것으로 본다. 새로운 언어로 습관을 들이기 위한 한가지 기법으로 개발된 것이 문형 연습(pattern practice)이라는 교수 기법이다.

미국 구조주의 문법의 꽃을 피운 Fries(1945)는 문형 연습과 병행하여, 특히 성인 학습자에 대해 언어 구조에 관한 면밀한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Fries는

언어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배울 때는 자국어의 간섭(interference)이 일어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조분석(contrastive analysis)이 외국어 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

1950년대 후반 이래로 이성주의적 언어 습득관이 경험주의적 구조 언어학의 언어 습득관을 공박했다. 이성주의자들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육체와 구분되는 정신(mind)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인간의 행동은 주로 인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성주의 철학과 인지주의 심리학에 맥락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변형생성문법(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의 이론인데 이에 따르면, 인간은 생각하고 또한 어떤 특정한 언어를 배우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일련의 습관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변형생성문법 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Chomsky(1965)에 의하면, 언어는 생득적인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경험은 단지 언어 습득 장치(language acquisition device)를 가동하게 하는 자료에 불과하다. 인간에게는 언어의 규칙성을 발견하는 능력과 그 발견된 유한한 규칙성을 운용하여 무한한 문법적인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즉 언어사용의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언어 자료가 주어지면 그 자료를 입력(input)으로 삼아 머리 속에 있는 언어 습득 장치가 문법 규칙을 만들고 바로 이것이 언어능력이 되어서 새로운 문장을 자유로이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언어 습득 장치의 출력(output)이 그 언어의 문법 규칙이 되는 것이다.

V. 영어교육에 유용한 문법이론의 발취

실제 문법지도에서 어떤 문법이론을 따라야 하는가? 외국어 교육에서는 인지주의에만 온전히 의존할 수 없고, 결국 외국어 능력이란 끈질긴 훈련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행동주의적 이론과 인지주의적 이론을 하나로 접목시키려는 Carroll(1971)의 절충주의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구조주의문법 이론과 변형생성문법 이론에서 영어교육에 유용성이 있는 내용을 선택하여 실제 문법교육에 적용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그러면 두 문법이론을 비교, 분석하여 영어 교수/학습에 유용한 내용을 발취해보자

1. 인지능력의 작용

행동주의자들은 인간의 정신이 존재하느냐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고, 이 점이 이성주의자들과 뚜렷이 구분된다. 그래서 그들은 언어 학습을 두뇌의 사고 과정으

로 보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이성주의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정신(mind)을 갖고 있으며, 다른 동물에서는 불가능한 어떤 종류의 정신적 활동을 하게 하는 고도로 잘 조직된 두뇌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인간이 갖추고 있는 인지 능력 중에 생득적 언어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는 사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영어 학습에서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지적인 인식 구조의 작용을 등한시 할 수 없다.

2. 습관과 창의성

구조주의문법 이론에서는 조건 반사에 의해서 언어가 습관적으로 형성되어진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변형생성문법 이론에서는 언어의 창의성을 강조했다. 즉 언어를 안다는 것은 그 언어로 새로운 문장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영어를 배우기 위해 영어 표현을 습관적으로 외워야 하나, 아니면 변형생성문법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언어의 내재적 창의성만 믿으면 되나? 이에 대해서는 Cummins(1980)의 언어 능력의 구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Cummins는 의사소통 상황과 격식에 따라서 언어 능력을 기본 대인관계 의사소통 기술(BICS: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Skills)과 인지 학문적 언어 능력(CALP: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으로 구별한다. BICS는 대인 관계를 영위해 나가기 위해 필수적인 기본적 의사소통능력이고, CALP는 학술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지 능력과 상호 보완적인 창의적인 언어 능력이다. BICS에서는 기초 회화 표현이 요구되는데 기본적인 회화에서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틀에 박힌 표현이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 그렇지만 과연 회화책을 통해 숙달된 판에 박힌 표현들로 상대방과 진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 말을 창조할 수 있어야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구체적인 상황도 묘사할 수 있으므로 일상 대화에서도 CALP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CALP이 있어야 진정한 의사소통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언어 능력과 습관적인 관용 표현 사용 능력이 모두 필요하다. 따라서 언어는 창의적인 면과 습관적인 면 둘 모두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이해와 연습

극단적인 구조주의문법 이론에서는 의식 없는 기계적인 훈련에 너무 의존하는 반면, 극단적인 변형생성문법 이론에서는 기계적 훈련을 전적으로 부정한다.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영어가 사용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EFL 상황으로서 영어를 완전히 외국어로만 쓰는 상황이다. 영어가 생활의 일부가 아니고 공부의 대상으로서 일단 교실을 나서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없으므로 학습한 내용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

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위적으로라도 반복 훈련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FL 상황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강화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내재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더욱 더 강도 높은 학습이 요구된다. 내재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하며, 집중적인 훈련을 위해서는 다소 기계적인 훈련도 요구된다. 그러나 의미 없는 기계적인 연습만으로는 진정한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 없다. 의미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 암기하고 기계적으로 반복 훈련하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상황과 의미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훈련을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연습 없는 이해, 이해 없는 연습 둘 모두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해와 더불어 연습이 필요하다.

4. 언어간 대조분석

변형생성문법에서는 보편문법을 추구하는 반면에, 구조주의 문법에서는 각 언어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여 언어간 대조분석을 사용한다. 언어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배우려고 할 때 자국어의 간섭 현상이 일어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조분석이 외국어 교육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유명한 로만스 언어학자인 Berlitz Malmberg((1983; 김태환, 김태환에서 재인용)는 외국어를 습득하는데 각각 다른 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들면,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우는데 필요한 영문법은 서반아 사람이 영어를 배우는데 필요한 문법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의 차이는 영어와 서반아의 구조의 차이와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사실 모국어가 외국어를 배우는 데 방해만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모국어와 외국어를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외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조분석은 외국어 학습에 효과적이다.

VI. 문법이론을 적용시킨 문법교육

1. 문법규칙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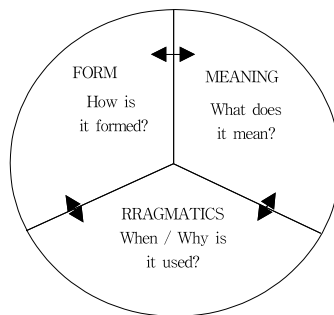
앞 장에서 영어학습에서 인지 능력의 작용을 등한시 할 수 없음을 언급했었다. 문법교육을 할 때 인지발달이 이루어진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문법규칙을 우리말로 설명해주는 것이 문법 학습에 보다 더 효과적임을 실제로 많이 경험한다. 언어에 대한 감이 오지 않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인지 능력으로 보완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설문 조사에서도 표3에서 보듯이, 약70%의 다수 학생들은 문법교육 시 문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표 3
문법교육시 문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필요성

문법교육시 문법에 대한 교수의 자세한 설명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빈도(명)	퍼센트
예	364	70.1
아니오	155	29.9
합계	519	100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주어야 하나? 문법규칙을 습득하여 영어의 실제 수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법규칙을 설명해주어야 할 것이다. 즉 문법규칙에 대한 설명도 의사소통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품사나 단어를 나열한 문법 공식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Larsen-Freeman(1991; 박경자 외 30인)에서 재인용)은 삼차원의 문법틀을 제시했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삼차원의 문법틀에서는 형태/구조(form/structure), 의미(meaning/semantics), 화용(pragmatics)의 세 부분이 계층적으로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둥근 판을 형성한다.

그림 1
삼차원의 문법틀



구조영역은 특정 문법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대한 것이며, 의미영역은 어떤 문법구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며, 화용영역은 언어와 문맥(context)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단순히 형태에만 초점을 맞추는 문법적인 설명은 문법규칙을 공식으로 외우기만 하고 실제 언어수행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어떤 문법규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규칙이 사용되는 적절한 상황과 의미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어야 의사소통능력의 초석이 되는 진정한 문법능력이 키워진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진

행형 수동태(progressive passive)에 대한 설명을 할 때 be+being+p.p.라는 형태만 알려주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 규칙이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상황과 함께 의미를 설명 해주어야 한다.

(1) Lunch is being prepared in the kitchen.

위 문장이 진행형 수동태가 쓰인 문장의 예이다.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 데 누군가 들어 와서 “Is lunch ready?”하고 묻는다. 이 때 위의 문장을 말해서 부엌에서 준비중임을 말할 수 있다.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점심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의해 준비되는 것이니까 be+prepared라는 형태를 써야 된다. 그리고 이야기 하는 순간에 점심이 준비되고 있는 중인 것이므로 be+동사ing의 형태를 써야 된다. 따라서 be being prepared라는 형태를 쓰게 되는 것이다.

2. 구문 패턴에 대한 지도

Chomsky(1965)가 언어의 창조성을 이야기하였는데, Widdowson(1978)도 의사소통을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규정하면서 창의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언어는 살아 있는 생물과 같은 것으로 수시로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회화에 몇 권의 각본과 같은 회화 책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없다. 자기 스스로 말을 창조할 수 있어야 대화가 이어지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바로 이럴 때 진정한 의미에서 ‘영어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으려면 그 언어의 고정적이고 전형적인 틀을 익혀야 한다. 언어의 틀이란 구문 패턴(grammatical pattern)으로서, 한 언어의 독특한 문장 구조 또는 단어 배열에 대한 지식이다. 반무의식적으로 언어가 가진 틀에 따라 언어를 생산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문법지도에서 구문 패턴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말을 배울 때 의미보다 형태에 더 치중할 때는 오히려 형태가 잘 배워지지 않고 오히려 형태보다 의미에 더 치중할 때 형태를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한다. 중학교 기본 문법 이상을 배운 사람이라면 아마도 영어의 5형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SV, SVC, SVO, SVOO, SVOC라는 5형식 규칙은 잘 알고 있는데 왜 제대로 된 영어 문장 하나도 스스로 만들기 어려울까? 그것은 의미를 음미하지 않고 그저 형태만을 기계적으로 외웠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He put it.과 같은 문장이 뜻이 통하지 않는 비문법적인 문장임을 모르고 영어의 3형식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다.

의미와 구문을 연계시켜 지도하고자 할 때는 의미를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어휘이기 때문에 먼저 어휘의 의미와 그 어휘가 쓰이는 문맥을 지도해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구문 패턴 중 어휘의 의미와 연계된 구문 패턴에 대해서만 논의하겠다). 문법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문법을 지도하는 교수는 문법이론의 연구 결과들을 영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도움이 되도록 단순화시키고 응용하여 지도해야 한다. 특히 변형생성문법은 영어교육의 활용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을 받는데 변형생성문법의 이론을 쉽게 풀어 설명한다면 현대영어의 구조 특히 어휘의 의미와 연계된 구문 패턴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영문법 지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어의 문맥 구조상의 정보는 하위범주화(subcategorization) 조건이라 하여 변형생성문법 이론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위범주화는 그 단어가 허용하는 보충어(complement)에 대한 정보이다. 즉 그 단어 뒤에 어떤 문장 구성성분(constituent)이 따라와야 되는가에 대한 제약이다. 아래 문장들의 비문법성은 하위범주화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 (2) * John put the meat.
- (3) * The teachers identified that the students were late.
- (4) * Robert is fond that his children love animals.

put 동사는 +[-NP PP]로 하위범주화 되는데 (2)의 put 뒤에 NP는 따라오지만 PP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비문이 되는 것이다. identify는 +[-NP]로 하위범주화 되는데 (3)에서는 identify 뒤에 절이 따라오므로 비문이 된다. 형용사 fond는 +[-PP]로 하위범주화 되는데 (4)는 이런 하위범주화에 맞지 않으므로 비문법적이다.

하위범주화 조건은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하는 것과 아주 밀착된 관계를 갖고 있다. 즉 put 동사가 (2)에서처럼 ‘(어떤 위치에) 놓다’라는 의미의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 +[-NP PP]라는 하위범주화를 갖는다. 또 choose 동사를 사용하여 ‘그는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라는 의미의 영어 문장을 만들도록 학생들에게 요구했을 때 (5)와 같은 문장을 자신 있게 말하는 학생이 드물다.

- (5) He chose to run for the election.

choose가 ‘-하기로 결정(결심)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뒤에 ‘to+동사’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5)의 문장을 들었을 때 올바른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choose 동사를 이용하여 (5)와 같은 문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장 창조의 토대가 되는 구문 패턴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영어 동사의 의미 그리고 그 의미와 연계된 패턴을 함께 익히도록 지도해야 함을 위에서 보았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어휘 습득이 매우 중요한데, 단순히 어휘 목록만을 암기하는 것은 의사소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어휘의 의미와 문맥에 대한 정보를 함께 학습시켜야 실제 언어수행에서 그 어휘를 이용하여 문

장을 만들어 쓸 수 있는 것이다. 영한 사전들 중에는 그 단어 뒤에 어떤 문장 구성성분이 따라와야 되는가 또는 따라올 수 있는가 하는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또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 단어가 사용되는 구문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변형생성문법의 연구 결과를 응용하여 지도함이 효과적임을 보이겠다.

(6)의 문장들은 전통적으로 학교문법에서 이른바 5형식 문장으로 분석되었었다.

- (6) a. I want him to go.
b. I expect him to come.

want와 expect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목+to do’로 문맥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위의 문장들에서 목적어로 분석되는 him만이 술어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다. (6)의 문장들은 의미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문장이 합쳐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7) a. (I want---) + (he will go)
b. (I expect---) + (he will come)

즉 의미상으로 볼 때 오른쪽 () 안의 문장이 술어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to 부정사를 전통문법과는 달리 구(phrase)로 보지 않고 절(clause)로 분석한 변형생성문법의 분석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형생성문법 분석에 의하면, (6)의 문장들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 것이다.

- (8) a. I want [him to go]
b. I expect [him to come]

him은 부정사 절의 주어가 되는 것으로, ‘go’, ‘come’이라는 행위를 하는 주어의 의미를 갖는다. want나 expect의 문맥 정보를 ‘목+to do’로 표시하는 것은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형태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렇게 형태에만 주의를 기울일 경우 동사에 따라 부정사 구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 실제로 그 동사를 사용할 때 혼동을 가져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expect와 persuade 동사는 똑같이 사전에 ‘목+to do’로 문맥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문맥 정보만으로는 (9)에 있는 두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실제로 언어수행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 (9) a. I expected the doctor to examine my wife.

b. I persuaded the doctor to examine my wife.

의미상으로는 (9a)에서는 expected의 목적어가 ‘의사가 아내를 검사하는 것’이고, (9b)에서 persuaded의 목적어는 ‘의사’이다. 변형생성문법에 의하면, (9a)와 (9b)는 (10a), (10b)처럼 구문상 차이가 있는 것이다.

(10) a. I expected [the doctor to examine my wife]

b. I persuaded the doctor [PRO to examine my wife]

(변형생성문법에서는 추상적이며 눈에 안보이고 발음도 나지 않는 PRO라는 공명사구(empty NP subject)를 설정하고 있는데, the doctor를 지시하는 것으로 전통문법에서 말하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해당된다.)

(10a)에서 the doctor는 examine의 주어의 의미인 것이고, (10b)에서 the doctor는 persuaded의 목적어 의미인 것이다.

동사의 단편적 의미만 알면 실제 의사소통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동사의 문맥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동사 뒤에 따라오는 문장 구성성분이 이루는 구문의 의미를 함께 익히도록 지도해야 실제 언어수행에 효과적인 지도가 될 수 있다. expect나 persuade처럼 ‘목+to do’로 문맥 정보가 표시되었던 동사들의 경우, 목적으로 표시되었던 성분은 동사에 따라 주어, 직접 목적어(...을), 간접목적어(...에게)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11)에서처럼 그 동사가 어떤 의미로 쓰일 때는 어떤 형태의 문장 구성성분이 수반되며 그 구문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함께 연계시켜 구문 패턴을 지도해야 한다.

(11) a. expect+명사+to+동사: N이 V하기를 기대하다(바라다)

We cannot expect him to obey.

b. encourage+명사+to+동사: N에게 V하도록 권유하다

He encouraged me to apply for the job.

c. persuade+명사+to+동사: N을 V하도록 설득하다

We persuaded her to wait.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법 설명 및 지도를 할 때 가능한 한 문법적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정사, 관계대명사, 가정법..등 어려운 문법적 용어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주눅이 들게 하고 영어를 더 어렵게 느껴지게 한다. 예를 들어, ‘to 부정사’는 ‘to+동사’로 풀어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동사 뒤에 온 him, me, her 모두가 술어동사의 목적어 의미가 되지는 않으므로 동사 뒤의 구성성분을 목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혼동을 일

으킬 수 있다. 따라서 문장 구성성분을 명시할 때 목적어, 보어 등의 용어를 쓰지 말고 (대)명사, 동사, 형용사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3. 어순에 근거한 문법지도

구조주의 문법에서는 각 언어의 특수성을 중시하여 언어간 대조분석을 실시하고 교수에 응용한다. 모국어와 외국어 사이에는 구조적 차이들이 있는데 이것이 곧 학습 문제가 되므로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사실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 중에는 먼저 우리말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특히 대학생 성인 학습자들이 더 많은 모국어의 간섭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조분석의 지식은 학습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하므로, 대조분석은 문법지도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학습자들은 우리말 어순 때문에 영어 학습에서 어순의 간섭을 많이 받는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의미상 명사를 수식하는 구와 절이 우리말에서는 수식하는 명사 앞에 오는 반면 영어에서는 뒤에 온다.

(12) a. I need time to study.

공부할 / 시간

b. The lady wearing the red dress is my sister.

빨간 드레스를 입은 / 여자

c. I lived in a house built 100 years ago.

백년 전에 지어진 / 집

d. I have a friend who is a professor at Harvard.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 친구

e. She is the girl whom I saw at the theater.

내가 극장에서 보았던 / 소녀

f. I'm looking for a house that has a big living room.

큰 거실이 있는 / 집

g. This is the camera that I bought yesterday.

내가 어제 산 / 카메라

h. This is the suit I like best.

내가 가장 좋아하는 / 양복

i. This is the letter which came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온 / 편지

j. This is the picture which I painted last year.

내가 작년에 그렸던 / 그림

k. I want to live in a country where it snows.

눈이 내리는 / 나라

l. Check your time when you have finished.

당신이 끝마친 / 시간

m. The reasons why I help you are various.

내가 너를 도와주는 / 이유

우리말과 영어의 어순이 반대이기 때문에 (12)와 같은 구문들을 익히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말과는 달리 영어에서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구와 절이 수식하는 명사 뒤에 옴을 의식적으로 학습시켜야 한다. (12)의 구문들은 분사, 부정사, 관계절이라는 문법적 항목에서 다루어지던 것들이다. 그런데 위의 구문들은 모두 의미상으로는 명사를 수식하는 의미이고, 우리말과는 반대의 어순 때문에 어려움을 일으키는 구문들이다. 영어는 우리말과는 달리 단어의 어순상 위치에 따라서 주어와 목적어의 역할이 결정된다. 즉 영어의 어순은 문법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영어에서는 직렬 어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문법적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분사, 부정사, 관계절이라는 문법적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단어의 배열 즉 (13)과 같은 어순에 근거하여 구문을 파악하고 의미를 이해하도록 지도할 것을 제안한다.

- (13) a. 명사+to+동사
 b. 명사+동사ing
 c. 명사+과거분사
 d. 명사+who+동사
 e. 명사+whom+주어+동사
 f. 명사+that+동사
 g. 명사+that+주어+동사
 h. 명사+주어+동사
 i. 명사+which+동사
 j. 명사+which+주어+동사
 k. 명사+where+주어+동사
 l. 명사+when+주어+동사
 m. 명사+why+주어+동사

명사+동사ing구문의 경우 명사와 동사 사이에 능동적인 주어+동사 의미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등 각 구문이 사용될 수 있는 의미적 조건도 학생들이 익히게 지도해야 할 것이다.

VII. 문법지도단계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문법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예시화 단계

먼저 학습하여야 할 문법구조를 대화를 통해 제시하여 문법과 의사소통 기능의 연계가 이루어지게 한다. 예를 들어, 'have(has)+과거분사'라는 문법구조를 지도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대화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

A: So, how was your weekend?

B: Oh, really good. I went to see David Copperfield.

A: The magician?

B: That's right. Have you ever seen him?

A: Yes, I have. I saw his show in Las Vegas last year. He's terrific.

B: Yeah. He does some incredible things.

A: Have you ever been to Las Vegas?

B: No, I've never been there.

A: You should go sometime. It's an interesting city, and the hotels are wonderful.

대화문 제시 후에 (VI 1)에서 언급한대로 형태, 의미, 상황을 연계시켜 문법 설명을 간단하고 핵심적으로 해준다. 과거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의사소통기능을 위해 'have(has)+과거분사'라는 문법적 형태가 쓰여 '...한 적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됨을 소개하고, 동사의 과거형을 쓸 때와 have(has)+과거분사를 쓸 때의 차이를 인식하도록 설명한다. 또 소개된 문법구조가 나오는 읽기 자료도 제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예문을 접할 수 있게 해준다.

2. 연습단계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언어지식은 명시적 지식(explicit knowledge)과 암시적 지식(implicit knowledge)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된다. Krashen(1982)은 습득-학습 구분 가설(the acquisition-learning distinction hypothesis)을 제시하면서 제2언어 학습자의 습득지식과 학습지식을 구분했다. 습득지식은 의사소통적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저절로 터득하는 무의식적 지식으로서 암시적 지식이다. 학습지식은 의식적으로 언어를 배움으로써 얻는 지식으로서 명시적 지식이다. 습득지식은 언어산출에

서 결정적 역할을 하지만, 학습지식은 아주 제한된 역할만 한다고 한다.

특정 언어구조에 대한 문법교육이 언어산출에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가 있다. Kadia(1988)의 연구에 의하면, 한 피험자가 9주 동안 특정 언어구조에 대한 설명을 받고 연습을 한 후 검사를 해 본 결과 통제된 언어수행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자발적 언어수행에서는 거의 효과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필자는 본 대학 교양영어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영어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구조에 대한 연습도 시켰다. 그리고 학기말에 학습한 구조들을 이용해야 하는 문장들을 제대로 산출하는지 테스트를 했다. 우리말을 주고 영어로 옮기는 필기시험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학습한 구조를 이용하여 올바른 영어표현을 했다. 그러나 구두로 우리말을 주고 영어로 표현하도록 했을 때 필기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 중 다수가 말로는 옮겨 표현하지 못했다. 또 교수와의 자유대화에서도 학습한 구조를 이용하여 말하는 학생들은 극히 적었다. 시간적으로 학습한 구문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있는 필기시험에서는 영어구문에 대한 문법학습이 큰 효과를 발휘했지만 학습 내용을 되돌아 볼 여유가 없는 구두시험에서는 문법지도가 별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

Kadia의 피험자 그리고 필자의 교양영어 수강생들의 경우 명시적인 학습지식이 암시적인 습득지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조사 대상자들은 학습한 문법 구문을 의식할 수 있을 때는 적절한 언어산출을 했지만 의식할 여유가 없을 때는 학습한 문법 구문을 이용하지 못했다.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문법 구조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 높은 연습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자유스럽고 자발적인 언어수행에서 학습한 문법 구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적인 연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본 대학 학생들에게 방학을 끝내고 개학하여 학기 중 학습한 문법 구문을 이용하여 언어수행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테스트했다. 결과는 학기중 필기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보인 학생들도 상당히 점수가 하락됨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학습된 명시적 지식이 시간이 흐르면서 유지되지 못함을 보이는 것 같다. 이 또한 역시 강도 높은 학습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McLaughlin(1983; 박경자 외 30인에서 재인용)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모든 학습은 통제처리과정(controlled processing)에서 자동처리과정(automatic processing)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고 이러한 자동화가 일어나려면 많은 양의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 나라 영어 학습자들중 영문법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영문법 지식을 이용한 언어수행에서는 자유스럽지 못한 것은 영문법 지식이 자동처리과정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따라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더 많은 연습과 훈련을 하게 되면 영문법 지식이 자동처리과정으로 전환되어 실제의 언어수행에 영문법 지식을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창조적 문장을 만들 수 있는 틀이 되고 따라서 외국어 습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

야기되는 필수적인 구문들을 익히기 위해서는 그 구문들이 사용된 쉬운 문장들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한 문장을 기억하여 기본 구문이 익혀져서 의사소통능력의 바탕이 되게 하려면 일단 외운 것을 토대로 하여 자기 자신의 언어 신경 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끊임없는 언어사용을 통하여 기억된 자료가 언어 신경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즉 단기기억(short term memory)이 아닌 장기기억(long term memory)에 저장하여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I am sorry," "I love you," "Thank you" 등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뜻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들이 완전히 내재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영어인지 우리말인지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그 표현들의 완전한 주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영어의 보다 많은 문형의 주인이 되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 언어를 창조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영어가 가진 구조가 언어 신경 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 진정으로 영어를 할 수 있으면 끊임없는 언어 사용이 요구된다. 그러면 어떻게 구문을 반복적으로 익혀서 그 구문을 내재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 나라와 같은 EFL 상황에서는 교실 밖으로 나서면 영어를 의미있게 사용하는 상황이 전혀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영어 구문을 반복적으로 듣고 연습할 수 없으므로,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반복 학습을 시킬 것인가?

수업 시간에는 그 시간에 소개된 구문을 사용하여 우리말을 영어로 옮겨 말해보는 연습을 집단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시킨다. 글이 아니라 말로 영역을 해보는 것은 제약된 시간에 발음, 어휘, 구문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수업 시간은 너무나도 제한된 시간이므로 우리말을 영어로 옮겨 쓰는 연습을 자율학습 시간 또는 숙제를 통해 반복적으로 시킬 것을 제안한다.

쓰기가 말하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는 연구들이 있다. Paulston(1974)은 18세에서 24세 사이의 러시아어를 배우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말하기 연습을 하기에 앞서 쓰기를 실시했는데 쓰기 기능이 다른 언어 기능을 습득하는 데 큰 이점을 주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신용진(1982)은 우리 나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대화를 가르칠 때 듣기 다음 말하기로 들어가지 않고 쓰기 단계를 먼저 실시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연구 발표를 지적하면서 쓰기가 말하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어학실을 이용한 자율학습 시간에 쓰기를 통한 반복 연습을 모색해볼 수도 있다. 최근에 컴퓨터와 CD-ROM을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CALL 어학 실습실이 등장하여 여러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 CALL 어학 실습실의 여러 장점들 중 대표적인 것이 개별적인 자유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버에 여러 가지 종류의 영어 교육 자료를 넣어 놓고 한꺼번에 여러 학생들이 자신의 기호와 필요에 따라 교재를 골라 자율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초보 프로그래머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 쉽게 배울 수 있는 BASIC(Beginners All Purpose Symbolic Instruction Code)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

제시된 우리말을 영어로 입력하면 즉시 옳고 그름을 확인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이 이용하게 하면 쓰기를 통한 반복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3. 의사소통단계

과거 수업은 교사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학생과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재로만 수업을 하는 것은 단조롭고 지루한 수업이 되어 학생들의 동기유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의사소통적인 문법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여 자유롭게 언어산출을 하는 활동들이 문법지도에 포함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묘사와 역할극을 들 수 있다. 묘사의 한 예로 가족 사진을 가져 와서 친구들 앞에서 묘사하도록 한다. 이런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배운 인물 묘사에 필요한 문법 구문을 이용해야 할 것이므로 의사소통적인 문법 연습이 될 것이다.

역할극은 대규모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 모두가 다 참여하는 수업이 되게 할 수 있다. Shaftel과 Shaftel(1967), Paulston과 Bruder(1976), Littlewood(1981), Seelye(1984), Savignon(1987) 등은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역할극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Paulsson과 Bruder(1976)는 역할극 자료를 상황, 역할, 그리고 유용한 표현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고 있다. 학생들을 여러 집단으로 나누고 어떤 한 상황을 기술해 주거나 대사 부분을 지운 만화를 주고 집단별로 의논을 하여 서로 역할을 정하게 한 후 수행할 역할극의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영어 문장을 만드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구문에 대해 암시를 준다. 이러한 암시를 줌으로써 학습자가 학습한 문법 구문을 수행하는 역할극에 반영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학습한 문법 사항을 고려하여 대사를 만든 후 연습을 하고 학생들 앞에서 그룹별로 실연하게 함으로써 역할극은 학습한 문법 구문들을 이용하여 말을 하는 연습을 하게 되어 문법 연습과 의사소통적 언어사용이 통합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VIII. 결론

본 연구는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영어교육의 영향으로 문법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문법교육을 재조명해보고자 했다. 의사소통능력의 개발이라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영어교육 목표 아래에서도 문법교육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고, 문법교육이 필요하다면 의사소통능력의 초석이 되는 진정한 문법능력을 키울 수 있는 효과적인 문법 지도를 모색해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Widdowson(1988)이 언급한 것처럼, 의사소통적 교육은 문법을 부정하는 교육은 아

니다. 문법적 능력은 의사소통능력의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나라의 EFL 환경에서 문법적 능력을 위한 의식적 문법교육이 필요한지 검토해본 결과, 이론적 고찰과 대학생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법과 관련된 학습자 요구분석 둘 모두에서 문법교육의 필요성은 인정되었다.

그렇다면 문법교육을 시키되 과거처럼 문법지식을 기계적으로 암기시켜 문법지식과 의사소통능력 사이에 심각한 괴리 현상을 가져오는 문법교육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문법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효과적인 문법지도를 모색함에 있어 현대 언어학의 대표적인 문법이론들인 구조주의문법과 변형생성문법의 이론들을 고찰한 후 영어교육에 유용성이 있는 내용을 뽑아 실제의 문법교육에 적용시키는 시도를 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들을 했다.

첫째, 언어학습에서는 인지 능력이 작용하므로 인지발달이 이루어진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문법규칙을 우리말로 설명해주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 때 형태와 더불어 그 규칙이 사용되는 적절한 상황과 의미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어야 영어의 실제 수행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자기 스스로 말을 창조할 수 있어야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언어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으려면 구문 패턴을 익혀야 되고, 이를 위해 의미와 구문을 연계시켜 지도해야 한다. 의미 전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어휘로서, 어휘의 의미 그리고 그 의미와 연계된 패턴을 함께 익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변형생성문법이 영어교육의 활용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을 받는데, 변형생성문법의 이론을 쉽게 풀어 설명한다면 현대영어의 구조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영문법 지도를 할 수 있음을 밝혔다. 셋째, 우리 나라 학습자들은 영어학습에서 우리말 어순의 간섭을 많이 받는데, 영어의 어순은 문법적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직렬 어순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문법적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단어의 배열 즉 어순에 근거하여 구문을 파악하고 의미를 이해하도록 문법지도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바람직한 문법지도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예시화 단계가 필요한데 문법과 의사소통 기능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대화, 읽기 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하여야 할 문법구조를 제시해주어야 한다. 연습단계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문법구조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 높은 연습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우리 나라의 EFL 상황에서는 인위적으로 반복 연습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쓰기를 통한 반복 연습을 제안했다. 의사소통단계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여 자유롭게 언어산출을 하는 묘사, 역할극 같은 활동들을 문법지도에 포함시켜 문법 연습과 의사소통적 언어사용이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

문법은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라는 인식을 하고 의사소통능력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문법지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올바른 영어교육을 위해 뜻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교육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문법지도 방안에 역점을 둔 연구로서, 지도 효과에 대한 실험 연구는 다음의 연구 과제로 삼겠다.

참고문헌

- 김입득. (1995). 한국의 영어 습득과 학습 이론의 발달, *영어교육*, 50(1), 69-105.
- 김태환, 김태한. (1983). *영어교수법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신문화사.
- 박경자 외 30인. (2001). *영어교육입문*. 박영사.
- 박경자, 강복남, 장복명. (2003). *언어교수학*. 서울, 박영사.
- 박덕재. (1996). 영어교육과정의 개발. *영어교육*, 51(1), 23-37.
- 박원. (1996). *영어교육학*. 인하대학교 출판부.
- 박혜숙. (1998). 문법지도가 제2언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 53(1), 157-178.
- 정동빈. (2000). *영어교육의 새출발*. 서울, 학문출판사.
- 한상호. (1999). 21세기 학습자 중심 영어교육의 방향. *현대문법연구*, 17, 191-206.
- 한은수. (1995).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교육 모델 제시. *영어영문학*, 14, 177-194.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25-150.
- Carroll, John B. (1971). Current Issues in Psycholinguistics and Second Language Teaching. *TESOL Quarterly*, 5, 250-272.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The MIT Press.
- Chomsky, N. (1973). *Essays on form and interpretation*. New York: North Holland.
- Cummins, J. (1980). The contrast of language proficiency in bilingual edu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Georgetown Roundtable on Language and Linguistics.
- Ellis, R. & Rathbone, M. (1987). *The acquisition of German in a classroom context*. London: Ealing Collage of Higher Education.
- Ellis, R. (1990). *Instructed second language learning*. Oxford: Basil Blackwell.
- Fotos, S. & Ellis, R. (1991). Communicating about grammar: A task-based approach. *TESOL Quarterly*, 25, 605-629.
- Fotos, S. (1994). Integrating grammar instruction and communicative language use through grammar consciousness-raising task. *TESOL Quarterly*, 28, 323-351.
- Fries, C. C. (1945).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Greenbaum, S. & Quirk, R. (1990). *A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 language*. London: Longman.
- Hymes, D.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J. Pride & J. Holmes (Eds.), *Sociolinguistics: Selected readings*.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 Kadla, K. (1988). The effect of formal instruction on monitored and spontaneous naturalistic interlanguage performance. *TESOL Quarterly*, 2, 510-535.
- Krashen, S. D.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rashen, S. D. (1993). The effect of formal grammar teaching: Still peripheral. *TESOL Quarterly*, 27, 722-725.
- Littlewood, W. T. (1981).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An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ng, M. H. (1988). Instructed interlanguage development. In L. M. Beebe (Ed.) *Issu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Multiple perspectives*. New York: Harper & Row.
- Murphy, R. (1987). *Grammar in u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ulston, C. B. (1974). Linguistic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TESOL Quarterly*, 8, 345-372.
- Paulston, C. B. & M. N. Bruder. (1976).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echniques and procedures*. Cambridge: Winthrop Publishers.
- Radford, A. (1981).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ver, S. M. (1981).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 Rutherford, W. (1987). *Second language grammar: Learning and teaching*. London: Longman.
- Savignon, S. (1983). *Communicative competence: Theory and classroom practice, texts and context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ddison: Wesley Publishing.
- Seelye, H. N. (1984).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Lincolnwood, Ill.: National Textbook.
- Shaftel, G. & G. Shaftel. (1967). *Role-playing for social values: Decision-making in the social studie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White, R. V. (1988). *The ELT curriculum design, innovation and management*.

Oxford: Basil Blackwell.

Widdowson, H. (1978).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ilkins, D. (1976). *Notional syllabus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Yoon, Hee-Soh. (1999). The place of grammar in English composition.

English Teaching, 54, 67-93.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

김부자

서울기독대학교 국제어학원

122-080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1-19

Tel: (02)380-2562

E-mail: kbj9512@scu.ac.kr